

“모두가 홍색문화를 존중하게 하고 싶다”

— 당국강 홍색경전 예술작품전 연길서

8월 17일, ‘이곳 풍경 유독 아름다워라’—당국강(唐国强) 홍색경전 예술작품전이 연길 로동자문화궁에서 펼쳐졌다. 연변조선족자치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전전부 부장인 김기덕이 전시 개막식에 출석했다.

이번 전시는 주문련에서 주최하고 연변로동자문화궁, 길림성브랜드제품 농업발전유산회사, 길림성홍양(鴻洋) 영화텔레비존방송유한회사에서 주관했다. ‘이곳 풍경 유독 아름다워라’—당국강 홍색경전 예술작품전은 우리나라 저명한 표현예술가인 당국강선생이 펼치는 전국적인 순회전시로서 2021년부터 전국 여러 도시에서 진행되면서 광범위한 사회적 영향을 보이고 있다.

전시 개막식에는 당국강을 비롯한 국가 1급 배우 허문광, 저명한 배우 양보정, 특장은 등이 초청되어 출석했다. 현장에서는 <당국강 홍색경전 재생> 영상을 방영하고 <장정>, <해방> 등 영화, 드라마 사진들과 당국강이 창작한 모주석 경전 시사(詩詞) 서예 작품이 전시되었다. 개막식후 당국강은 많은 영화팬 및 연변내 여러 문예계 인사들과 함께 전시를 관람하고 각 영화와 드라마의 경전 사진 앞에서 자신이 혁명위인의 빛나는 형상을 부각하고 홍색 영화 드라마를 활용한 체계를 공유했다.

김기덕은 개막식 축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연변은 로혁명근거지로서 홍



▲ 국가 1급 배우이며 서예가이고 영화감독인 당국강(唐国强, 앞줄 우 1)이 작품전시 현장에서

색 력사가 유구한바 졸곧 각급 홍색교양기지의 작용을 충분히 발휘해오고 홍색교육 자원과 내포를 발굴해왔으며 홍색 선전교육 사업을 잘해왔다. 이번 전시된 작품들은 당국강선생이 련수 모택동 주석을 연기한 경전 작품 사진과 모주석 시와 시를 내용으로 한 서예작품들이다. 전시된 작품은 모두 당

국강선생이 엄선해낸 것으로서 그의 꾸준한 예술 추구와 전기적인 연예인생을 서술하고 있으며 한 로예술가의 드넓은 심경과 침착하고 객관적인 인문정서를 보여주기도 한다.

개막식에서 당국강은 길림성과 주당위 선전부의 전폭적인 지지로 이번 전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게 되

었다면서 전시를 통해 관중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전시를 계속해 나가면서 연예계에서 인솔 작용을 함으로써 모두가 홍색문화를 존중하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당국강 일행은 연길공룡박물관과 중국조선족민속원 등지도 참관했다. / 연길시당위 선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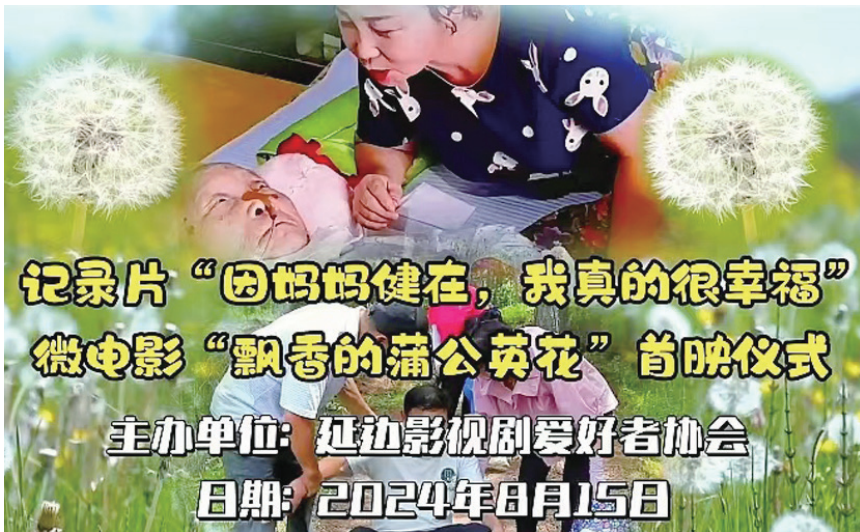
연변영화드라마애호가협회 로인절 현제작품

또 두편의 미니영화 연길서 탄생

연변영화드라마애호가협회에서 ‘8.15’ 연변 로인절 현제작품으로 내놓은 <어머니가 있어 나는 참말로 행복해요>와 <즐겁게 날리는 민들레꽃> 두편의 미니영화 상영식이 로인절날 연길시에서 있었다.

중풍으로 10년 동안 누워계시는 어머니를 극진히 보살피는 전영실의 감동적인 사적을 기록영화 형식으로 제작한 <어머니가 있어 나는 참말로 행복해요>와 사람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철학적인 화면으로 깊은 사색과 여운을 남겨준 <즐겁게 날리는 민들레꽃> 두편의 영화는 관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심금을 울려주었다.

영화 관람이 끝난 후 제작인 전영실과 영화감독 손룡호가 이번엔 현제작품으로 내놓은 두편 영화의 제작 동기와 제작 과정에 대하여 소개했고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이 무대에 올라 감사패를 수여받았으며 영화평도 이어졌다. 소설가 홍현룡은 95세 고령의 어머



▲ 미니영화 <어머니가 있어 나는 참말로 행복해요>와 <즐겁게 날리는 민들레꽃>의 포스터

니에게 온갖 효성을 다하는 전영실은 중화 5천년 효도문화를 계승해낸 우수한 모범으로 손색이 없다면서 높이 평가했다.

미니영화 <즐겁게 날리는 민들레꽃>은 사람들이 위기에 봉착하였을

때 외면하지 말고 서로서로 도와나서야 한다는,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우리 삶의 도리를 여러 인물의 다각적인 연기로 잘 표현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영화 상영식에서 중국드라마감독사

업위원회 부비서장이며 북경영화촬영소 특약제작자인 김석광선생은 “고향 연변에서 황혼기를 맞은 60~70대 로인들이 무보수로 8년 동안 거의 100부에 달하는 미니영화와 기록영화를 만들어내면서 황혼기를 불태웠다고 하니 감동된다.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준다.”고 높이 치하하였다.

북경에서 온 김희선녀사는 “배우들의 연기가 너무 소박하고 자연스럽고 실감이 나서 전직 배우들에 짝지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황혼을 이렇게 가치 있는 일에 쏟아붓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정말 보기 좋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손룡호 회장은 “우리는 영화를 만드는 애호가들의 모임이다. 우리는 자신들의 재간과 마음을 영화 제작에 바칠 신심과 결의가 항상 불타오르고 있다. 계속 뚰뚱 뚰뚰 더 우수한 영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 안상근기자

두만강가에서 펼쳐진 동시의 잔치

— 제 11 회 두만강청소년시화전 도문서

연변작가협회에서 주최하고 도문시동해우호협회에서 운영하는 제 11 회 두만강청소년시화전이 8월 16일 오전 도문시국문생태원에서 개막되었다.

연변교사시조문학회 회장 허승철은 경과보고에서 지난 5월부터 시작한 동시 공모에 200여수가 응모되었으며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평의를 거쳐 93수의 동시가 수상

의 영예를 지니게 되었고 시화로 제작되어 도문시국문생태원에 전시되었다고 소개하면서 이 같은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물심량면으로 후원해준 연변작가협회와 도문시새일대관심사업위원회 등 단위와 인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시화전 시상식에서 화룡시신동소학교 5학년 3반 김운룡, 왕청현제2실협소학교 5학년 2반 리애령, 도문시5중 7학년 1반 차승아, 연

길시공원소학교 6학년 5반 리희주, 도문시제5중학교 8학년 3반 최석민 등 5명이 대상; 안도현동풍소학교 6학년 1반 신지원, 길림시조선족실험소학교 6학년 1반 하현옥 등 10명이 금상을; 연변대학사범본원부속소학교 3학년 3반 김주하, 룡정시룡정중학교 7학년 1반 김연 등 38명이 은상을; 상해시추평소학교 5학년 2반 박환우, 화룡시신동소학교 5학년 2반 송민혜 등 40명이 동상을 수상하였다.

시상식에서는 또 학생들에게 우리 동시를 쓸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지도해준 최향옥, 김홍, 박금화 등 15명 우수학부모와 한매화, 리원수, 김명수 등 13명 우수지도교원들을 표창하고 그들에게 증서를 발급하였다.

연변작가협회 김영건, 김선화 부주석과 전병철, 최기자, 김영는 등 문인들이 시상식에 참가하여 수상자들에게 시상하고 축하와 격려의 말을 하였다.

/ 김태국기자



▲ 대상 수상자들



▲ 시화전시 현장의 한 모퉁이

우리의 명절과 기념일

의사절의 유래와 의의

— 신기덕 —

올해 8월 19일은 제 7 회 ‘중국 의사절’이다. 2016년 8월 19일에 있는 전국 위생 및 건강 회의는 당과 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에서의 위생 및 건강 사업의 중요한 위치와 새로운 시대의 위생 및 건강 사업방향을 명확히 하였다. 회의는 인민의 건강을 최우선 발전의 전략적 위치에 두고 인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전면적으로 노력할 것을 제기하였다.

2017년 11월 3일, 국무위원회는 ‘중국의사절’에 대한 위생계 획위원회의 신청을 통과시켰고 2018년부터 매년 8월 19일을 ‘중국 의사절’로 제정하는 데 동의하였다. ‘중국의사절’의 제정은 당시 1,100만명 이상의 위생 및 건강 사업자들에 대한 당과 국가의 관심과 인정을 보여주었다.

‘중국의사절’의 날자를 8월 19일로 정한 이유는 이날의 특별한 의미와 관련된다. 우선 8월 19일은 중국 의사협회가 설립된 날로

중국의 광범한 의사를 대표함과 동시에 의사의 진료 수준과 의료 봉사의 질을 제고시키려는 것이 고 다음, 이날은 1998년에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의사법>의 공포와도 관련이 있는바 이 법은 중국 의사 관리의 법적 경로를 확립하고 의사의 직업 발전을 위한 법적인 보장을 제공해주었다. 그리고 8월 19일은 국가과학기술 활동의 날로 지정되어 국가과학기술 자질을 제고시키고 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했는데 이는 의학 과학의 발전과 상호 보완적이다. ‘중국의사절’이 가지는 의의는

많은나 아래 몇가지만을 살펴보자.

의사는 인간 건강의 수호신으로서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군체의 하나이다. 의사절을 제정한 것은 의사의 직업에 대한 사회의 높은 관심을 보여준다. 의사절을 제정하면 사회적으로 의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의사의 더 나은 직업환경을 보장할 수 있어 그들이 환자들에게 더 잘 봉사할 수 있게 된다.

의사절을 제정하면 사회 전체가 의사를 존중해야 함을 상기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의사가 자물적 이고 자기 성찰적이고 자중하며 직업적 사명을 더 잘 수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의사절을 제정하면 의사의 생활대우, 직업환경, 대우건설 등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의사의 사회적 지위를 제고시킬 수 있다.

의사절을 제정하는 것은 의사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에 의사의 건강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개선하고 의 대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은 국민이 의사를 존중하고 위생을 중시하는 좋은 분위기의 형성을 촉진하고 ‘건강한 중국’ 전략의 심층적인 시행을 가속화할 수 있다.

총적으로 의사절은 의사 집단에 대한 사회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의사의 사회적 지위를 제고시키며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개선하고 우리 나라 의료위생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장춘영화촬영소 장춘영화제 관련 활동들 손짓

제 19 회 중국장춘영화제가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장춘시에서 펼쳐진다. 영화제 기간 장춘영화촬영소는 계속해 국유영화기업의 작용을 발휘하면서 ‘역사·청춘·미래’를 주제로 한 계열 활동을 벌이게 된다.

‘2024 장춘영화의 밤’ 교향음악회 시간 : 8월 29일, 30일 저녁 7시 30분. 장소 : 장춘국제회의전시중심 주최장.

장춘영화촬영소악단이 올해 국가대극원에서 성공적으로 진행한 공연 - ‘경전으로 향하는 약속’ 교향음악회 곡목을 기초로 펼쳐진다.

‘극본탐구’ 주제 워크숍 시간 : 8월 29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장춘리공대학 동구 도서관 보고정. 중국 영화 발전의 전면에 립각해 업

계 전문가, 학자, 극작가, 연출 등이 모여 영화의 공업화 진척 가운데서의 새 문제, 새 추세, 새 방법, 새 가치를 연구 토론(论剧本)하며 새시대 영화산업 고품질 발전에 건원헌책한다.

‘도시의 빛’ 영화 상영 활동 시간 : 영화제 개최 기간. 장소 : 장춘영화촬영소(장춘시 조양구 흥기가 1118번).

장춘영화촬영소 구내에서 디지털 4K 수복 경전 영화, 장춘영화제 역대 수상 영화 회고, 선발에 참가한 영화 연합전시 등으로 공개 방영을 한다.

영화예술가 서예전(2차) 시간 : 영화제 개최 기간. 장소 : 장춘세계조각공원. 시간 : 8월 30일, 31일. 장소 : 장춘영화촬영소 제 2 스튜디오(장춘영화촬영소 구내). 중국 영화인들의 서예 력자들이 온

집해 서예와 영화의 조화로운 의취와 매력을 보여주고 예술의 경계와 융합을 감수하도록 하며 정채로운 예술의 향연을 선물한다.

주제 음악제 및 소심양(小沈阳) 2004 투어 콘서트 장춘역 시간 : 9월 7일 저녁 7시 30분. 장소 : 장춘경제개발구체육장. 장춘과 길림을 한층 더 널리 선전하며 전국 콘서트 시장에서의 길림성의 분량과 지명도를 향상시키고 문화관광경제 발전을 이끈다.

영화 주제 계열 활동 시간 : 6월 15일 - 9월 하순 장춘영화제기성에서 ‘기묘한 밤’ 야유회, 영화 전시 상영, 영화 포스터 전시, 중국장춘영화제 주제 전시관 등 활동을 벌인다.

/ 길림일보



▲ 소심양(小沈阳) 장춘역 콘서트 포스터